

사회

# 민주화 성지에 편의시설 없다

## 5·18민주묘지 참배객·전학 학생 급증 불구 휴식공간 전무

### 기념식때마다 유가족 맨땅에서 식사하기도

세계적인 민주화 운동의 명소로 자리잡은 국립 5·18 민주묘지에 참배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마땅한 편의 시설이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18일 국립 5·18 민주묘지관리소에 따르면 5·18 민주묘지(면적 16만㎡)에는 묘지(9900㎡)·역사공간(1만 8000㎡)·민주광장(9900㎡)·참배광장(1만 2000㎡)·전시공간(2600㎡) 등이 조성돼 있다.

하지만 5·18 민주묘지에는 건물 외의 공간에 순례나 참배 도중 휴식을 취하거나 가벼운 단소를 나누며 5·18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편의 공간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5·18 민주묘지는 해마다 5월 영령들을 위한 추모식과 기념식 개최는 물론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사기업·교원단체 등의 역사체험 코스나 소풍·수학여행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올 들어 이날 현재 참배객 수는 42만여 명이다. 지난해에는 69만 5900명이 다녀가는 등 매달 6~7만명이 방문하고 있다.

이미 세계적인 민주화 교육의 순례 코스로 자리잡은 5·18민주묘지의 위상에 걸맞은 편의시설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단순한 햇빛 가리개나 벤치 등을 설치해 휴식 공간을 설치하기 보다는 국립묘지에 걸맞은 친자연적이고 경건한 편의 공간을



18일 광주시 북구 운동동 국립 5·18 민주묘지 민주의 문 맞은편 도로 갓길에서 5월 관련단체 회원들이 기념식이 끝나자 대형 천막을 설치한 뒤, 맨바닥에서 점심을 먹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조성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5·18 민주묘지에 조성된 쉼터는 어린이 체형학습관 입구 공간과 매점 옆 파고라, 주차장 인근 파고라 등 파고라 11곳을 포함한 등반이 벤치(2~3인용 나무 의자) 130개 정도 있다.

이 같이 편의시설이 없는 탓에 수학여행 등을 온 단체 참배객들은 맨바닥에서 식사를 하거나 유일한 쉼터인 파고라 주변에 무질서하게 물러 있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어린이들은 묘역을 참배하고 묘지 전체를 둘러보는 동안 무더위에

시엔 강당 등으로 활용하면 좋을 텐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립 5·18 민주묘지관리소 이형주 소장은 "매년 기념식 때마다 유가족들이 바다에서 식사를 한다거나 쉬는 등 안타까운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5월 관련단체 소속 회원 민병원(65·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씨는 "해마다 기념식에 참석하는데, 매년 마땅한 장소가 없어 맨바닥에서 식사를 해결한다. 가족끼리 편히 앉아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면서 쉼터만 공간조차 없다"며 "쉼터를 마련해 큰 행사 때 식당이나 휴식공간으로, 평상

시엔 강당 등으로 활용하면 좋을 텐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립 5·18 민주묘지관리소 이형주 소장은 "매년 기념식 때마다 유가족들이 바다에서 식사를 한다거나 쉬는 등 안타까운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5월 관련단체 소속 회원 민병원(65·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씨는 "해마다 기념식에 참석하는데, 매년 마땅한 장소가 없어 맨바닥에서 식사를 해결한다. 가족끼리 편히 앉아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면서 쉼터만 공간조차 없다"며 "쉼터를 마련해 큰 행사 때 식당이나 휴식공간으로, 평상

### "파월장병 전역 후 범죄 성실 생활했다면 유공자" 전주지법

참전용사가 전역 후 강력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반성하는 태도로 성실하게 생활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중춘 부장판사)는 18일 베트남전쟁에 참여한 뒤 폐결핵에 걸려 의병 전역한 이모(64)씨가 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전역 직후인 1971년 12월 강도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가석방으로 출소했다"며 "이후 폭력 혐의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원고가 아무런 불마친 점, 수년간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등 성실하게 살아온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이용호, 보해저축銀서 거액 대출"

#### 광주지검, 불법대출과정 개입 수사도

보해저축은행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용호 게이트'의 이용호씨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추적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씨를 최근 광주교도소로 이감해 보해저축은행의 불법·부실 대출과정에 개입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가 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담보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씨가 대출받은 액수와 경위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씨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특검을 구성하게 했던 게이트의 장본인이고, 검찰이 이씨를 이감까지 해 조사하는 점으로 미뤄 이번 수사

의 과정이 정·관계에까지 미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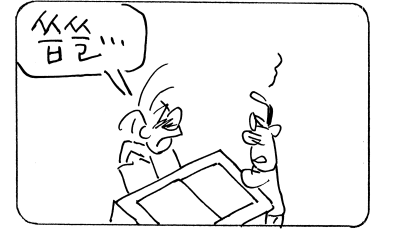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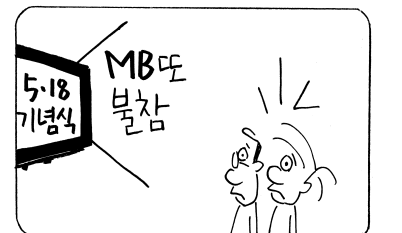
검찰은 이씨가 보해저축은행 측의 청탁을 받아 로비를 한 정황이 있는 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부실 대출을 받았다면 보해저축은행 오문철(구속기소)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볼 수 있다"며 "이씨가 부실대출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1998~1999년 인수한 계열사의 자금 8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1년 구속기소됐는데, 당시 수사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과 함께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동생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용호 게이트'를 낚는 한 장본인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나원침 (8317) 김장두



### '등산 붐'... 산악사고 조심하세요

#### 올 15% 증가 84건 발생 87명 중경상

#### 전남소방본부

가장 대중적인 레저 가운데 하나인 등산 인구가 늘면서 산악사고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된다.

18일 전남도 소방본부는 올해 들어 발생한 산악사고는 이달 중순까지 84건으로 87명이 중경상을 입거나 구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발생한 사고 건수에 비해 15% 증가한 것으로 등산을 즐기는 레저인구가 크게 늘면서 산악사고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소방본부는 이에 따라 산행 중 사고 발생 시 구조대가 사고지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산악위치표지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119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4일 오후 여수시 돌산읍

봉황산에서는 등산 중이던 30대 여성이 길을 헤매다 심한 탈수증상과 탈진상태에 빠졌으나 산악위치표지판을 활용, 119에 신고해 신속히 구조됐다.

산악위치표지판은 지리산국립공원 등 전국 25개 산의 주요 등산로에 390개가 설치돼 있으며 도내 국립공원 4개 산에도 친환경에너지인 태양광 모듈을 이용한 조명장치를 갖춘 태양광 산악위치 표지판도 12개를 운영 중이다.

이태근 전남도 소방본부장은 "대부분의 산악사고가 안전수칙을 무시하거나 준비부족, 본인 체력에 비해 무리하게 산행을 하던 중 발생한다"며 "사고에 대비해 등산로에 설치된 산악위치표지판 번호를 미리 알아두면 유익하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절임배추 사기 40대 검거

목포경찰은 18일 인터넷에서 김장용 배추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최대(40)세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 김장용 절임 배추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뒤 300여명으로부터 4000만원을 송금받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 불법 조업 中 어선 나포

목포해양경찰은 18일 영해를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로 중국선적 50t급 무허가 목선 1척을 나포했다. 배 이름이 없는 이 어선은 이날 오전 7시에 영해를 4km 침범한 영광군 안마도 남서쪽 50km 해상에서 삼치 등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다.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영해침범 행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 위조 신용카드 부당이득 오늘이 입건

○광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18일 해외에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정모(40)씨를 여신전통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위조 신용카드를 유통한 정씨의 누나(42)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3월 말 누나가 해외위조신용카드 공급책 임모(52)씨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 28장을 받아 오자 이를 자신이 운영 하는 가구점에서 사용, 카드 회사와 거래하는 해당 은행으로부터 1300만 원을 입금받은 혐의.

○임씨는 고속버스 편으로 위조 신용카드를 유통하는 방법으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으며, 경찰은 신용카드가 동남아에서 위조된 것으로 보고 임씨의 행방을 추적 중.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주먹밥 나눠주고 교문서 학생 안아주고...

#### 광주지역 학교 '5·18 체험'

5·18민주화운동 31주년인 18일 광주지역 학교에서는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5·18연구학교로 지정된 광주 신가중학교는 이날 오전 등교시간 교문 앞에서 교사와 학생이 서로 안아주기 행사를 가졌다.

교사들은 직접 만든 주먹밥을 학생들에게 나눠주며 80년 5월 광주사람들의 공동체정신을 체험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신가중 학생들은 '역사 다시보기-광주민중항쟁'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후 5·18을 주제로 글쓰기, 그리기, 포스터 및 표어 만들기 등에 참가했다.

금부초등학교와 광주전지공업고등학교는 이날 오전 한 학급씩 지정해 5·18 31주년을 기리기 위한 수업을 했다. 시교육청 직원



18일 광주 금부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주먹밥 체험을 하며 '5월 정신'을 배우고 있다.

300여명도 주먹밥 나누기 행사에 참여했다.

광주지역 초·중학생 217명은 처음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공식 참석해 선배들의 오월 정신을 기렸다. 광주중앙여고 박수인 양 등 초·중·고등 학생 6명은 헌화했다.

광주시교육청은 5·18 광주항쟁 기념일에 각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광주항쟁 관련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오월 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5월 민주열력' 역사기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가중학교 관계자는 "자라나는 세대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초석을 이룬 5·18을 제대로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5·18 기념일을 전후해 관련 수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운영기자 penfoot@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 3급 공무원 시험 [최강직] 최다 합격! 최강 퍼펙트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학습중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리보십시오

#### 7급 종합반 (이론)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기술직  
강의시간: 09:00 - 18:00 (2개월 완성)

#### 9급 종합반 (이론)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사법직, 농업기술직  
강의시간: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일 학습시간 1시간)

#### 9급 문제풀이

행정직/세무직/교육행정직/경찰직/교정직  
강의시간: 09:00 - 14:00 (4주 완성)

#### 법원/검찰직

강의시간: 09:00 - 19:20 (2개월 완성)  
노량진 유명강사진 총출결

#### 9급 야간반

강의시간: 19:00 - 22:00 (3개월 완성)  
대학재학생, 직장인을 위한 공무원 합격 특강반

#### 농업직/기술직

강의시간: 09:00 - 15:30 (2개월 완성)  
4년 연속 농업직 전국최다합격률 배출!

#### 명품 "강력단과"

영·권·행·경·국·한·법·화·재·공·화  
강의시간: 15:30 - 18:30 (2개월 완성)

#### 합격률 소망직 (전문)

시험장과 동일, 체력측정기 도입  
강의시간: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일 학습시간 1시간)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 한빛고시학원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 개강 1월